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1. 15.(화) 총 4매(본문 4)	
담당 부서	도시경제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정희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김은경 • ☎ (044) 201-4845, 4097, 4879	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시,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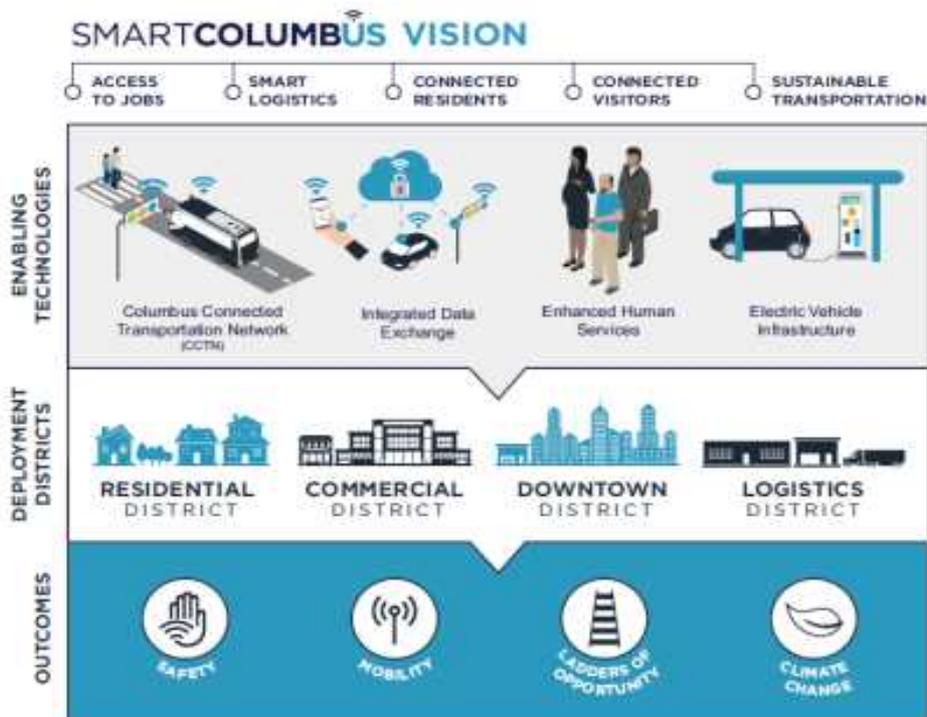
- 민간제안 기반 ‘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’ 신규 추진,
지자체 + 기업 등 협력, 6개 사업 선정...총 90억 원 투자 -

- 기업, 대학,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, 혁신적인 기술·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: 김현미)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·시민의 수요를 반영(Bottom-up)하는 ‘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(스마트 도시 민간제안형 사업,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)’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‘챌린지 사업’에 착안하여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서,
 -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·대학(아이디어·투자) + 지자체(공간·시민)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(1단계, 사업 당 15억 원 지원)하고,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(2단계, 검토 중)하게 된다.
-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 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 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, 바텀-업(Bottom-Up)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.

- 이를 위해 지자체 + 기업 등이 연합체(컨소시엄)를 사전에 구성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,
-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,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, 민관협력(거버넌스)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,
- 특히, 각 사업별 지원예산(15억 원)의 경우에도 '사업기획 수립 + 대표 솔루션 실증' 등에 자유롭게 구성·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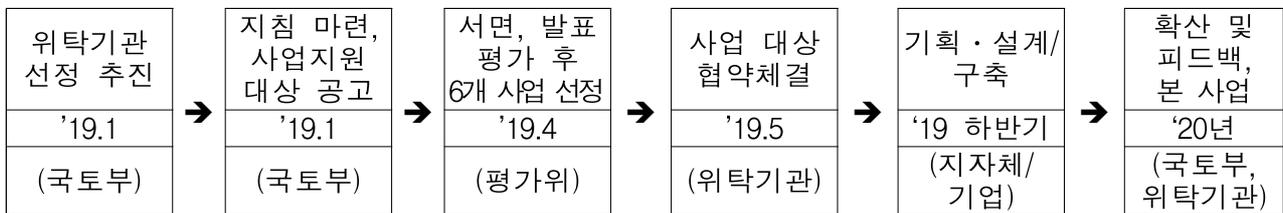
◆ 참고 : 미국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사례

- (배경) 美 교통부(DOT)에서 미래 교통의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시 전역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'Smart City Challenge' 추진('15.12)
 - 78개 도시 지원 경쟁을 거쳐 콜럼버스市 최종 선정(5천만 달러 지원)
- (주요내용) ①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②데이터 통합공유 ③교통이용자 서비스 개선 ④전기차 인프라 등 교통분야 4대 전략 추진
- (성과) 민간기업(아마존·AT&T 등) 대규모 투자 + 스마트시티 관심 제고



* 사진출처 : 美 교통부, www.transportation.gov

- 한편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, 이번 사업은 **교통·에너지·환경·안전**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**도시 문제를 해결하기** 위해 추진되며,
 - 접목한 **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**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, **대·중소기업 및 스타트업, 대학·연구기관**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**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**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 - 또한 ‘규제 샌드박스’ 제도*를 활용하여 **시범사업(대표 솔루션 실증)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·서비스가**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.
 - * 산업융합촉진법('19.1), 정보통신융합법('19.1), 지역특구법('19.4 시행) 등 활용, 또는 도시단위 솔루션 실증을 위한 ‘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’ 도입('19년 계획)
-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**4월 초까지 지자체+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** 되며, 이후 서류·발표평가를 거쳐 **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** 계획이다.
 - 이후 연말까지 **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·실험운영을** 진행하게 되며, 최종 평가를 거쳐 **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** 중에 있다.



-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“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,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”이라면서,

- “아울러, 지자체와 **대·중소기업, 스타트업**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, 우수 사례를 통한 **일자리 창출**에도 기여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정채원 사무관, 김은경 주무관(☎ 044-201-4097, 4879)에게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